

농협 건강 검사 사업에 올해엔 3억 투자

농협중앙회 공제부장 申石浩씨



▲ 농민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申石浩씨

농협중앙회 공제부장 申石浩씨(51세). 이번 농협 무료간염검사사업에 수훈을 세운 사람이다.

공직에 있다가 농민문제에 남다른 뜻을 가졌던 그는 “농민을 위해 살자”를 생활신조로 삼을 만큼 농민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다.

주변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책임감 강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철저한 사람, 그리고 인간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농민단체는 농민의 건강과 부를 책임질 때에만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61

년부터 시작된 농협 공제 조합에서는 농민지도자교육, 농민신문발간, 장학사업, 유통사업' 등 여러가지 뜻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공제조합에 관해 설명한다.

『의료사업의 효시는 '68년 농촌 아동구충제 공급이었지요. '76년엔 공제 순회진료차도 운행했습니다.』라면서 그는, 『질병변화의 추세에 따라 '81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박멸이 정착된 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예방의학적 차원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데서 생각한 것이 농민에 대한 무료간염검사 사업입니다.』라고, 이번 사업의 동기를 차분히 그리고 정확히 설명한다.

『이번 간염검사사업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검사범위나 투자액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겠지만, 농민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과 조기발견은 건협에게 맡기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를 확충, 치료를 맡기는 정책적 지원이 아쉽습니다.』라면서, 농민을 위해 개척해야 할 분야가 너무도 많음을 강조한다. 그의 그런 모습에서, 농민에 대한 사랑의 강한 채취가 물씬 풍긴다. (은)